

2011. **5** vol.96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e.mail obos@catholic.or.kr
발행인 김용태 편집 자원개발부 홍보팀

한마음한몸

5월은 한미한금봉헌의 달 한 줌의 쌀 예수님 몫으로



청소년들 마음에 희망의 무지개를 띄워주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책임질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 아이티 '앙트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래요 - 캄보디아 '깐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가수가 저의 꿈입니다 - 몽골 '첵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들,
그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청소년이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듭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지구촌 빈곤국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상처를 극복해 내고, 가슴에 꿈의 씨앗을 키운다면 그 씨앗은 잘 자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서적·문화적 지원이 만드는 기적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되어 주십시오.

● 후원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7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67

청소년들 마음에 희망의 무지개를 띄워주세요



5월은 한미한금 봉헌의 달 한 줌의 쌀 예수님 몫으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고통과 궁핍은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 그러나 동심은 커녕 하루하루를 기약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세상이 문맹 전쟁으로 인한 소용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태석 신부님을 만난 뒤로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음악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수단 톤즈마을의 토마스 -

수단의 슈바이처, 폴리신부님(故 이태석 신부)은 '톤즈 브라스 밴드'를 결성해 피리, 기타, 오르간, 드럼 등의 악기를 직접 가르치고, 연주회도 열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게 된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청중이자 스스로 멋진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자아실현의 방법을 배우고 미래를 꿈꾸게 된 톤즈의 아

이들이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故 이태석 신부가 톤즈마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만큼 정서적·문화적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면서 청소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서 톤즈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줄 빵과 우유를 건네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들 스스로가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의식주 생계지원을 넘어 교육을 포함한 정서적·문화적 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신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과 성금으로 저개발국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부의 '아이티-11개 학교 재건축', '부룬디-냐마보코 초등학교 워터네트워크 확대', '몽골-메리워드센터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독서클럽활동 지원', '미얀마-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교사양성 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해 빈곤으로 문화·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지구촌 빈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나눔콘서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옴치니코프 (Vladimir Ovchinnikov) 내한공연

블라디미르 옴치니코프는 세계 최고 권위의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1982년)와 영국 리즈 콩쿠르 (1987년)를 모두 우승한 세계 유일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음악 올림픽인 제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2011년 6월 개최 예정)의 심사위원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옴치니코프 (Vladimir Ovchinnikov)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 청소년들의 마음에 무지개를 띄우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1년 6월 12일 (일) 오후 2시
-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 공연문의 및 예매 02. 525. 8105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4만원 가톨릭신자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예매마감 : 6/7(화)까지)

※ 연주회의 수익금은 '지구촌 청소년의 문화적·정서적 지원'에 쓰여집니다.



자살예방,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한미음한몸운동본부가 서울 명동 거리에서 펼친 '자살예방 캠페인' (2010. 6. 6)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살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OECD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청소년 자살자수는 446명으로, 2008년 309명에 비해 140여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써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 자살을 얘기할 때 주요 특징으로 '충동성'을 말합니다. 충동성이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징후 없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

은 청소년들이 성적문제, 입시실패, 왕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리 없는 외침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침을 알아듣지 못할 때 청

소년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외침을 어떻게 알아듣고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곧 자살예방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의 외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자살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한미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지속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널리 알리고자 연중으로 '생명친

구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의 현실에서 고민하고 방향하는 우리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교육 및 연중캠페인 등 자살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우리가사는 이 세상은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살예방은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이즈 예방캠페인

에이즈 예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에이즈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생길수록 더욱 심각해 집니다. 에이즈 감염인들은 가족과의 단절, 직장에서의 퇴사, 주위의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에이즈 감염인들을 음식으로 내몰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에이즈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에이즈 감염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의지를 높이고,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으로 에이즈 감염인과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 (사)한국가톨릭레드리본 (02)753-2037~8
- 홈페이지 <http://www.redribbon.kr>
- HIV/AIDS감염인 상담전화 010.5108.2958
- 감염인 취약계층 지원상담 010.7725.2037

'생명친구가 되어주세요' 연중캠페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충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생명친구

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 ▶ 생명존중교육 및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하기
 - ▶ 자살예방을 위한 후원에 참여하기
 - ▶ 생명수호천사 활동에 참여하기
- ※ 생명수호천사 (본당을 중심으로 생명수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사람)

관련문의

한미음한몸자살예방센터 727-2295~7
위기상담전화 1599-생명친구(3079)
사이버상담 <http://www.3079.or.kr>

- 자살예방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 예금주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하루100원 모으기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1년 4월 29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 예금주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모두가 하나된 제 28회 훈자리축제

지난 4/16(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본 행사에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6회 바바라 바자회 수익금 전달

바바라앤코(대표 이재정)는 2/20(일) 진행된 <제 6회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 15,000,000원을 3/28(월) 본회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명동 문화축제 - 어린이 잔치 초대합니다

- 일시·장소 5/19(목) 10시30분(1회)/12시20분(2회), 명동성당 내 교스트홀
- 내용 장애인핸드벨 공연과 매직쇼 공연
- 대상 및 인원 6.7세 유아와 보호자 1인 (매회 100명 선착순 접수 - 공연 무료)
- 주최 서울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 후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5/17(화)까지 선착순 마감 02.727.2245

제103기 나눔의 목상회 피정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맞게 토착화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피정교육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6/3(금) 17시~6/5(일) 18시,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집
- 지도신부 이동원 야고보 (바보의니눔 사무국장)
- 문의 02.727.2547

환경사목위원회

광주 5·18 기념 및 4대강 되찾기

영산강 권역 생명·평화미사

- 일시·장소 5/16(월) 14시~17시, 광주대교구 남동 성당
- 주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주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참가문의: 02.727.2274)
- 내용 생명의 강 사진전, 문화공연, 생명·평화미사 봉헌

강(江)을 위한 수요 명동 생명·평화미사
환경사목위원회는 사회사목부 신부님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생명의 강을 위한 생명·평화미사'를 봉헌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과 생명을 섬기고 보호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와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미사입니다.

- 일시·장소 매주 수요일, 낮 12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문의 02.727.2272~6

정의평화위원회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반포 120주년 기념 세미나 “새로운 사태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와 사회”

- 일시·장소 5/11(수) 19시~21시20분,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73.1050
- 제1부 발제 '새로운 사태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와 사회' 박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제2부 라운드 테이블 토론, 사회: 김여상 교수
- 토론 강인철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박문수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권오광 (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회장), 임통일 (변호사), 한상봉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국장), 김선실 (전 새세상을여는여성공동체 대표) 등 참여

단중독사목위원회 <http://www.sulsul.kr>

가족치료모임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알코올 중독자 및 다양한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1시간 30분 소요)을 시작하려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364.1811~2

중독의 회복여정과 행복한 삶(2단계 피정)

- 일시 5/14(토)~5/15(일) 1박 2일
- 문의 02.364.1811~2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듭시다!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이진서 소피아 (2010.4.4생 父 이성규/ 母 문희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오채민 안젤라 (2002.2.20생 父 오현승/ 母 홍서영),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오선유 (2009.12.26생 父 오현승/ 母 홍서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한서 요셉 (2010.3.5생 父 김상욱/ 母 김민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현수 미카엘 (2010.4.7생 父 박봉균/ 母 손영혜),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윤태영 다니엘 (2010.3.27생 父 윤선웅/ 母 김기옥),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윤하영 로사 (2007.8.27생 父 윤선웅/ 母 김기옥),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지윤성 (2011.1.3생 父 지성국/ 母 최윤희),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민선 아녜스 (2011.1.14생 父 김장현/ 母 김선화),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수경 에디타 (2010.4.20생 父 박종오/ 母 손지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허세린 (2010.4.13생 父 허희수/ 母 안리나),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소희 (2010.4.15생 父 임규성/ 母 이효원),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예령 헬레나 (2010.4.18생 父 조광현/ 母 김동희),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나윤성 야고보 (2010.5.9생 父 나병선/ 母 임지영),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사업지원)
- 김승우 (2010.3.17생 父 김보선/ 母 정윤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